

한 눈에 보는 사회(Society at a Glance)

OECD회원국의 사회적 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성과를 평가 및 비교하고, 사회적 대응방안 및 정책이 사회 발전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사회지표를 통해 보여주기 위해, OECD Society at a Glance(2016.10.5.) 보고서를 발간하였다. 주 OECD 대한민국대표부 윤수경, 이준희 1등 서기관이 번역한 보고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.

1. 개요

OECD회원국의 사회적 현황 및 추세를 일반지표, 자활지표, 형평성지표, 보건지표, 사회 통합지표를 통해 보여줌

2. 한국관련 주요 사회지표

청년니트(15-29세)규모는 10%(2013년)로 OECD평균보다 약간 높고,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니트가 84%

3. 일반지표

OECD평균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은 2013년 21,600달러(한국 21,800달러)이고, 합계출산율(2014년)은 1.7로 낮은 편이며, 유럽내 난민신청자가 12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, OECD전반적으로 혼인 평균연령이 상당히 증가

4. 자활지표

고용률(2016년 1/4분기)은 OECD평균 67.9%(한국 66.0%)로 경제위기 이후 8년이 지난 현재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, 실업률은 OECD평균 6.4%(한국 4.2%)로 감소하는 추세

5. 형평성지표

OECD평균 지니계수는 0.317로 칠레, 멕시코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편(한국 0.302)이고, 상대적 빈곤율은 11%(한국은 15%)로 이스라엘, 미국, 터키의 빈곤율이 높음.

6. 보건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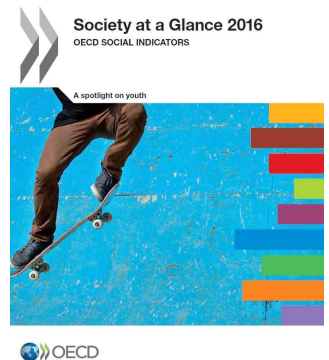
2014년 기대수명은 80.6세(한국 82.2세)로 1970년 대비 10년 상승,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68%가 좋다고 답변(한국 35%)

7. 사회통합지표

삶의 만족도는 스위스, 덴마크가 가장 높고(한국 28위/35개국), 타인 및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각각 36%, 42%(한국 26.6%, 28%)

8. 니트정책

학교 중도탈락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 지원이 필요하고, 직업훈련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도제제도 확대가 바람직



*원문

http://www.keepeek.com/Digital-Asset-Management/oecd/social-issues-migration-health/society-at-a-glance-2016_9789264261488-en#.WC5Vpx3_rcs